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1년 4월 20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331천 ㎢	9,738만명 (2020e)	사회주의 공화제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3,408억 달러 (2020e)	3,499 달러 (2020e)	Dong	23,208.37 (2020)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도입하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성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임. 또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꼽히며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응우엔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은 부정부패 척결 및 국유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공산당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재선출되어 정치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22 수교 (북한과는 1950. 1. 30)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3), 항공협정(1993),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과학기술협정(1995), 원자력협정(1997), 사증면제협정(1999), 기술협력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0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48,622,098	48,177,749	48,510,57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 입	19,643,385	21,071,557	20,578,589	무선통신기기 부품, 의류, 신발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595건, 28,099백만 달러

경제동향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e
경 제 성 장 률	6.7	6.9	7.1	7.0	2.9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5	3.5	2.8	3.2
재정수지/GDP	-3.2	-2.0	-1.0	-3.3	-5.4

자료: IMF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 유지

- 베트남 경제는 낮은 임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수 년 간 7% 내외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해 왔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FDI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주변국 및 세계 경제상황 대비 양호한 성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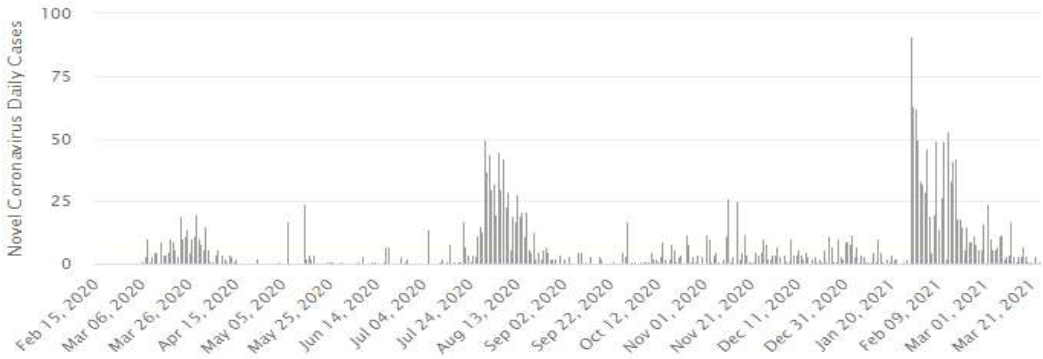
- 베트남은 적극적인 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2020년 4월 말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70명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비교적 빠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였음. 2020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3.8% 증가,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활동을 보인 결과 3%에 가까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2020년 경제성장률(IMF): 인도네시아 –2.1%, 태국 –6.1%, 아시아 개발도상국 –1.0%, 세계 –3.3%

- 베트남 정부의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5%이며 IMF, ADB, World Bank 등도 6%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음.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FDI 유치 회복,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은 성장률 반등이 전망됨.

- 단, 2021년 초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한 바 있어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그에 따른 이동제한 등 조치 여부, 대외수요 회복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함.

베트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자료: worldometers

국내경제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위축, 국제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인상 지속, 코로나19 이후 물류 제한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2019년 의료 서비스 가격 4.65% 인상 조치의 영향,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소비자물가상승률 바스켓 구성항목 중 식료품의 비중이 39.9%로, 식료품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2021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이 종식되는 등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들이 해소됨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와 대응 지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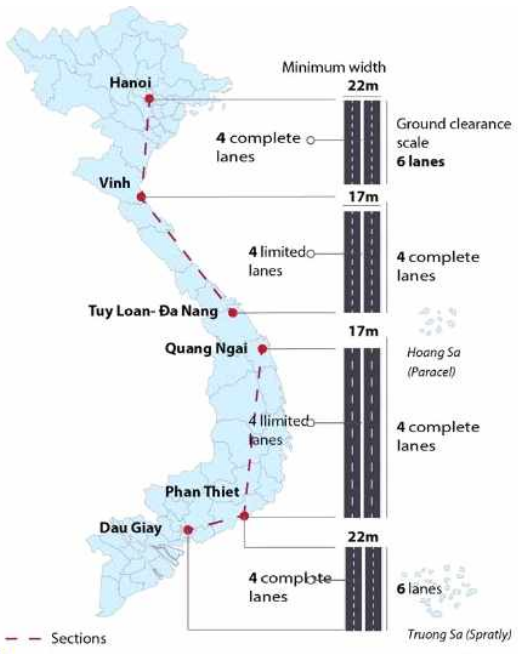
-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도로와 항만 등 각종 대형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겪어왔음. 이에 더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기업이익 감소,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방역 비용,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증대(전년 대비 14.5% 증가) 및 취약계층 소득 보조 등 정부 지출은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5.4%로 전년(-3.3%)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2021년에는 세금 감면, 소득 보조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이 점차 축소되고 내수가 회복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의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회복이 제한되면서 여전히 2019년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2019년 착공한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 사업(총 11개 고속도로 포함, 전체 사업 대상 도로 1,624km 중 654km 해당), 2021년 착공한 베트남 최대 규모 공항인 롱탄 국제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임.

- 2021년 3월 호치민과 빈프억 인민위원회는 호치민-빈프억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1~25년)을 승인하였으며,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남부 바리아-붕따우 지역 부처와 기관에 2030년까지 이 지역의 항만·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2045년까지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 신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동부 북남고속도로 전체 사업 계획



자료: 베트남 교통운송부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e
경 상 수 지	625	-1,649	5,899	13,101	16,509
경상수지/GDP	0.3	-0.6	2.0	4.0	4.9
상 품 수 지	11,042	10,846	16,540	21,494	33,506
상 품 수 출	176,581	215,119	243,697	264,189	276,334
상 품 수 입	165,539	204,273	227,157	242,695	242,828
외 환 보 유 액	36,167	48,693	55,074	77,955	91,349
총 외 채	89,419	107,991	109,964	122,276	132,727
총외채잔액/GDP	35.5	39.0	36.2	37.1	39.0
D.S.R.	3.9	6.1	7.1	7.1	8.2

자료: IMF, OECD

대외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가 지속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시현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20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어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에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음.
-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목 중 휴대전화 및 그 부품(18.1%),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15.8%)이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며, 전통적 수출품목인 섬유 및 의류제품(10.5%), 신발류(5.9%)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0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

순위	품목	총 수출액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감율
1	휴대전화 및 그 부품	18.1%	-0.4%
2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	15.8%	24.1%
3	기계 및 장비류	9.6%	48.6%
4	섬유 및 의류제품	10.5%	-9.2%
5	신발류	5.9%	-8.3%

자료: 베트남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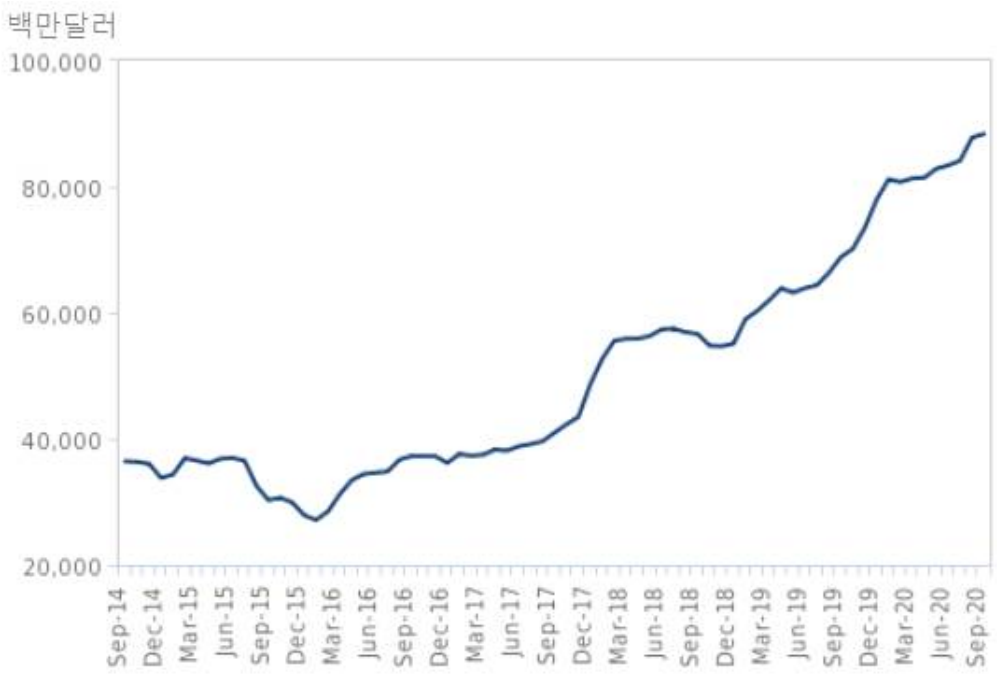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누적된 FDI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 기록

-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FDI 유입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1]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누적된 풍부한 FDI 유입과 GDP 대비 4.9% 규모의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2020년 말 91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D.S.R 8.2%,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39.0% 등 외채상환능력 관련 지표도 대체로 양호함.

- 수입 증가로 인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8년까지 2개월분 내외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큰 폭의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2019년 말 3.4개월, 2020년 말 4.0개월로 상당히 개선되었음.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역시 2020년 말 36%로 전년(42.2%) 대비 개선됨.

베트남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2014.9월~2020.9월)



자료: Fitch solutions

1)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중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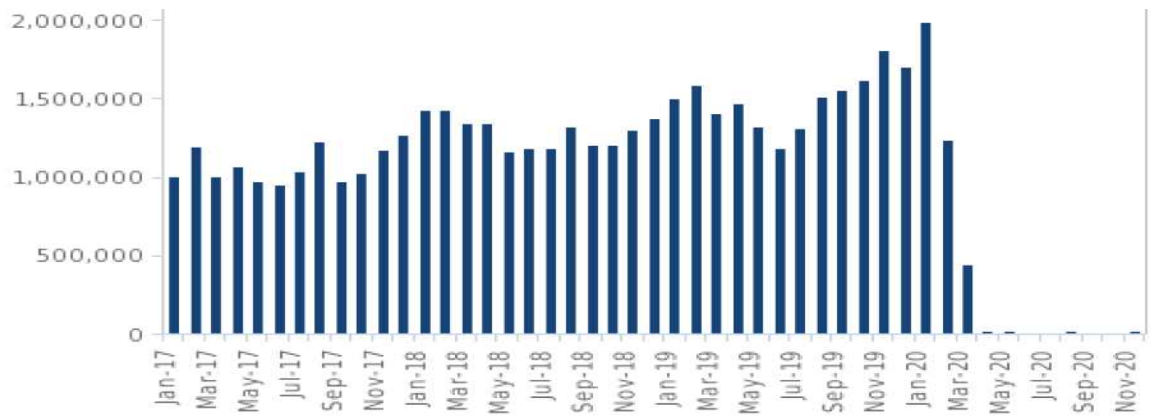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수출산업 다변화로 산업구조가 대체로 안정적,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 전망은 불확실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 부분품,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섬유 및 의류제품 등으로, 상위 6개 품목이 각각 총 수출액의 4.4~18.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OECD에서 발표한 베트남의 비제조업 부문 단일산업 수출의존도는 3.8%(관광업)로, 특정 품목 및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 산업구조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약 78.7% 감소하는 등 비제조업 부문 최대 수출산업으로 2019년 GDP의 9.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업황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2일자로 모든 해외 항공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 관광객 입국이 중단되었음. 동 조치가 장기화하자 4월부터 국내 관광 프로모션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 7월 2차 지역사회 감염, 2021년 1월 3차 지역사회 감염 발생 등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2021년 해외 입국자 수는 48,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7% 감소하였음.

베트남 해외 관광객 입국 현황(2017~20년)



자료: Fitch solutions

무역의존적 경제구조로 환율 변동에 민감

- 베트남 경제는 무역의존적인 구조로 환율 변동에 민감하며, 정부는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동(Dong)화의 완만한 평가절하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음. 꾸준한 외화 유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동화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동화/달러화 연평균 환율: '18년 22,602.05→'19년 23,050.24→'20년 23,208.37)을 유지해 왔으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미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정부 개입에 한계가 예상되며 향후 환율 하락(평가절상)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통화가치 절하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음. 이후 2021년 1월 USTR은 베트남 정부의 환율 개입 부당성과 그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통상법 301조 위반에 대하여 보복관세 등 대응은 유보하였음. 한편, 미 재무부는 2020년 12월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으나 2021년 4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였음.

경제구조 및 정책

구조적취약성

자연재해와 기후 변동에 취약

- 베트남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태풍이 집중 발생하며, 저지대 삼각주가 넓게 분포한 지리적 특성상 태풍과 그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 농업 부문의 중요도가 높아 이상 기후 발생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홍수, 해일, 폭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충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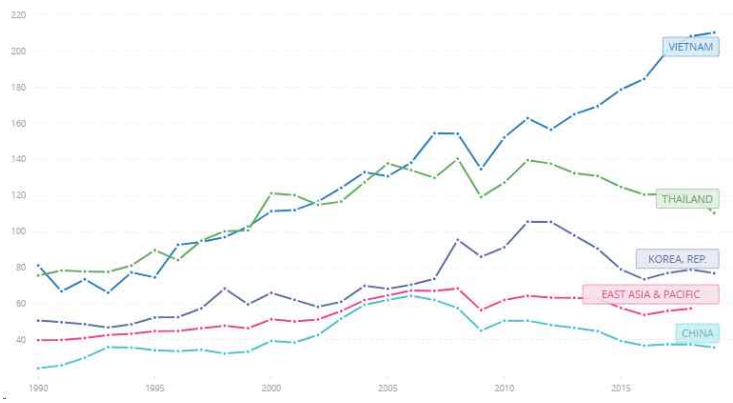
- 2020년 10월 베트남 중부 지방에 태풍이 4차례 상륙하며 대규모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어져 180여 명이 사망하고 수 만 채의 가옥 침수 및 경작지 피해, 500km 이상의 도로 파손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음.

성장잠재력

풍부한 수출지향적 FDI 유입으로 상품수출 지속 확대

- 베트남은 저임금, 정치적 안정, 다수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주요 시장 앞 수출 용이성 등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 FDI를 꾸준히 유치해 왔으며, FDI 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이 200%를 초과하는 등 투자와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방형 경제 구조임.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1990~2019)



자료: Worldbank

-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수입액 약 706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 중 93.7%가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일 정도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활동이 활발함.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FDI 유치액은 28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382억 달러) 대비 25%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투자 부진과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베트남 현지 투자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대형 투자를 실행한 싱가포르(1월, 화력발전소 40억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투자 유입이 감소하였음.

성장잠재력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FDI 유입이 부진하였으나,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중국 위주의 생산기지를 재편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2020년 베트남-EU FTA 발효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이뤄지며 베트남 앞 제조업 FDI 유입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됨.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 공장을 이전하기에 물리적으로 용이하며,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비교적 우수하여 유력한 대체지로 평가됨.

- 2020년 6월 퀄컴은 중국 생산라인 대체를 목표로 6월 베트남 하노이에 테스트 센터를 설립하였고, 애플은 2분기부터 무선 이어폰 '에어팟' 생산량의 3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호야그룹 등 중국 내 일본 기업 15개사도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하였음. 삼성전자는 중국 내 스마트폰 및 TV 공장을 모두 가동 중단한 데 이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베트남에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임.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기지를 분산 또는 이전하려는 수요가 베트남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대체 수요는 베트남의 산업생산과 수출에 즉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예비통계(3.21일자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특히 1월 말 코로나19 지역감염 재유행 이전인 1.21일 기준으로는 22.2% 증가하였음. 세부항목 중 제조업 부문이 가장 크게 개선(전년 동기 대비 9.0%)되었으며 전자기기 및 컴퓨터의 선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하는 등 제조업 공급기지 이전 및 글로벌 수요 증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가시화됨.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투자법을 개정,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안이 발효되었음.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제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제한 명단 이외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베트남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외국인 자본 접근 제한 산업을 기존의 243개에서 227개로 축소하였음.

- 법안에서는 국방과 보건 관련 산업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IT 및 금융산업 부문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였음.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내수시장 구매력 점차 확대

- 베트남의 2020년 인구 추정치는 약 9,700만 명으로 ASEAN 3위, 세계 15위에 해당하며, 30세 미만 인구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고 중위 나이가 32.5세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수출 제조기지로서의 전통적 역할 외에 구매력 있는 대규모 중산층이 있는 소매시장으로서 경제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구조 및 정책

정책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강력한 방역조치와 경기부양책 실시

- 베트남은 중국과 1,200㎞의 국경을 접하고 남중국해에 면해 있어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중국과의 육상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이후 항공, 해상을 포함하여 중국과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시 중단하고 중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중단,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14일 간 격리조치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음.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모든 해외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하고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실시한 결과 2020년 4월 말 누적 확진자 수 270명, 2021년 3월 말 누적 확진자 수는 2,603명에 그쳐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4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표하였음. 동 훈령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부채 상환 연기, 금리 인하 혹은 면제, 수수료 축소 등 11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축소, 공공투자 지출 및 집행 가속화, 실직자 재교육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추가로 26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하여 빈곤가구, 실직한 근로자, 소규모 가족기업 등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음.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추진

- 베트남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국영기업 583개사(2016년 기준) 중 128개사를 2020년까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말까지 37개사를 민영화하는 데 그침.

- 과도한 매각가격 책정,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 부패척결 정책에 따른 관료들의 소극적 행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기한 내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민영화 정책은 지속 추진 중임.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다수의 양자간, 다자간 FTA 체결

- 2019년 1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동년 6월에는 ASEAN-홍콩 간 FTA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정식 발효되었음.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 주도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정책성과

- 2020년 8월 EU-베트남 FTA(EV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베트남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VFTA에 따라 양측은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베트남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EVFTA는 베트남의 노동환경 및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더욱 근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베트남 정부는 독립적인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2021년 1월 1일자로 발효시켰음.

- EVFTA가 발효된 8월 베트남의 대 EU 수출액은 1~7월 월평균 수출보다 6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 9월 냉동새우를 시작으로 베트남 농수산품의 EU 앞 수출이 개시되었음.

- 2020년 11월에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되었음.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당초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가입 예정이었으나 인도는 최종 협상 타결 전 불참 결정

정치·사회안정

정치안정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3연임이 확정되며 정치적 연속성 확보

- 2021년 1월 말 개최된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이 이례적으로 3회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었음. 서기장은 공산당 권력 서열 1위로, 1당독재 체제인 베트남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임.

- 공산당 조례에 따르면 당 서기장은 2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65세 은퇴 조항이 있으나, 푸 쫑 서기장은 두 항목에서 모두 특례 취급되었음. 이번 연임은 공산당 역사상 최초의 3연임으로 강력한 정치적 안정과 정책 연속성이 예상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이 우려됨.
- 푸 쫑 서기장은 호치민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과 서기장을 겸직하였으며, 2021년 4월 국회에서 응우옌 쑤언 푹 전임 총리가 국가주석으로 임명되어 겸직은 해소되었음.

사회안정

사이버보안법 시행 등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비난에 강경 대응

- 2017년 형법 개정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계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의 24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

-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전제주의적 정보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토지 수용, 반중국 정서 관련 시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 토지, 환경,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한 시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폭력 시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불공정한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종종 발생하며, 경찰과 시위대 간 대치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2020년 1월에는 하노이 외곽에서 토지 수용 관련 시위 도중 경찰이 사망하였음.
- 2019년 8월 하노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반대 시위가 수차례 발생하였음. 2018년에도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 자본에 특혜를 부여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하노이·호치민 등에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음. 당시 반대 여론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임대 기간은 70년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정치·사회안정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베트남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2]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7개국 중 4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총 45개국임.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신용영향점수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해안가의 홍수 발생 등 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빈도 증가 등의 위험이 있음. 재해 발생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요구되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젊은 인구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깨끗한 식수의 공급 부족, 영양 결핍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미진한 가운데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 위험 요소임.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책효율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정책 결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정부기관의 업무 계획과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2019년에는 정부 채무상환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베트남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지속

-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남중국해의 원유·천연가스 개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및 해군 배치, 미국의 적극 개입 선언 등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국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임.

- 2018년 4월 베트남-중국 외교장관 간에 남중국해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는 등 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중시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7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중국 지질조사국 소속 선박이 중국 해안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베트남 해안 경비정이 추격하여 수주 동안이나 대치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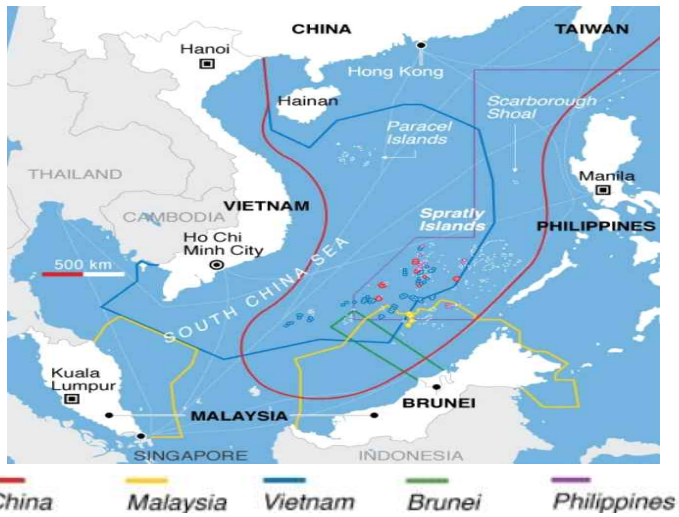
2)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Vietnam - Ba3 Positive, March 2021

정치·사회안정

국제관계

- 남중국해 영유권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민감한 사안이나,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 양국 정치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 외교관계 등을 감안시 군사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자료: Voice of America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 등과 안보 동맹 강화 추진

-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접국 외에도 일본·인도 등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강국들과의 유대를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동 아시아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에 베트남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동 지역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부담이 크지 않으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0년 말 기준 총외채의 약 75%가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도 8.2%의 양호한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베트남의 채무 잔액은 단기 19억 달러, 중장기 102억 달러 등 총 121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은 중장기 270만 달러(0.02%)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충분한 외환보유액 유지로 단기대외지급능력 양호

- 2020년 말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 말(780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한 913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단기외채잔액의 2.8배 수준으로, 당분간 단기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2020.06)	4등급(2019.06)
Moody's	BB (2020.05)	BB (2019.04)
Fitch	BB (2020.04)	BB (2019.05)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18년 이후 주요 신평사들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승

- 2018년 5월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BB- → BB), 동년 8월 Moody's도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B1 → Ba3).

- 2019년 6월 OECD는 정치 안정, 경제성장세 지속, 외채상환부담 감소 등을 근거로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종합의견

- 지난 수년 간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온 베트남 경제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FDI 유입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을 겪어 예년 대비 저조한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산업생산과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공산당 1당 체제로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202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세 번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이 우려됨.
- ASEAN 내 제조업 중심지로서 FDI 유치와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 영향에 따른 중국 생산기지 이전 수요에 대응하는 유력한 대체지로 평가됨.
- 지속적인 FDI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시현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여 외채상환능력 및 상환태도가 양호함.